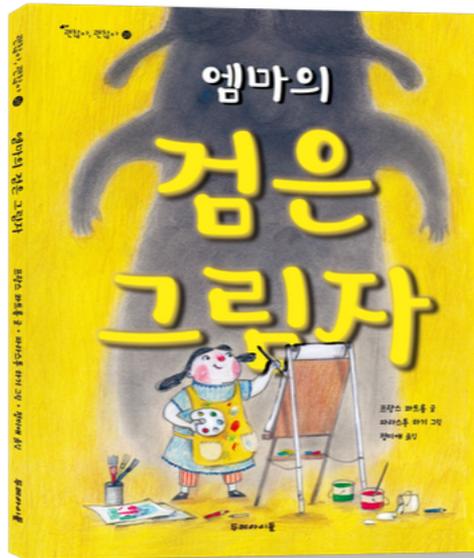


[엠마의 검은 그림자] 독후활동지



“ 왕따와 집단 괴롭힘 문제를 솔직하게 다루며
해결책도 일러주는 그림책! ”

프랑스 콰트롬 글 | 파라스투 하기 그림 | 정미애 옮김
두레아이들 | 36쪽 | 초등 1-2 학년

교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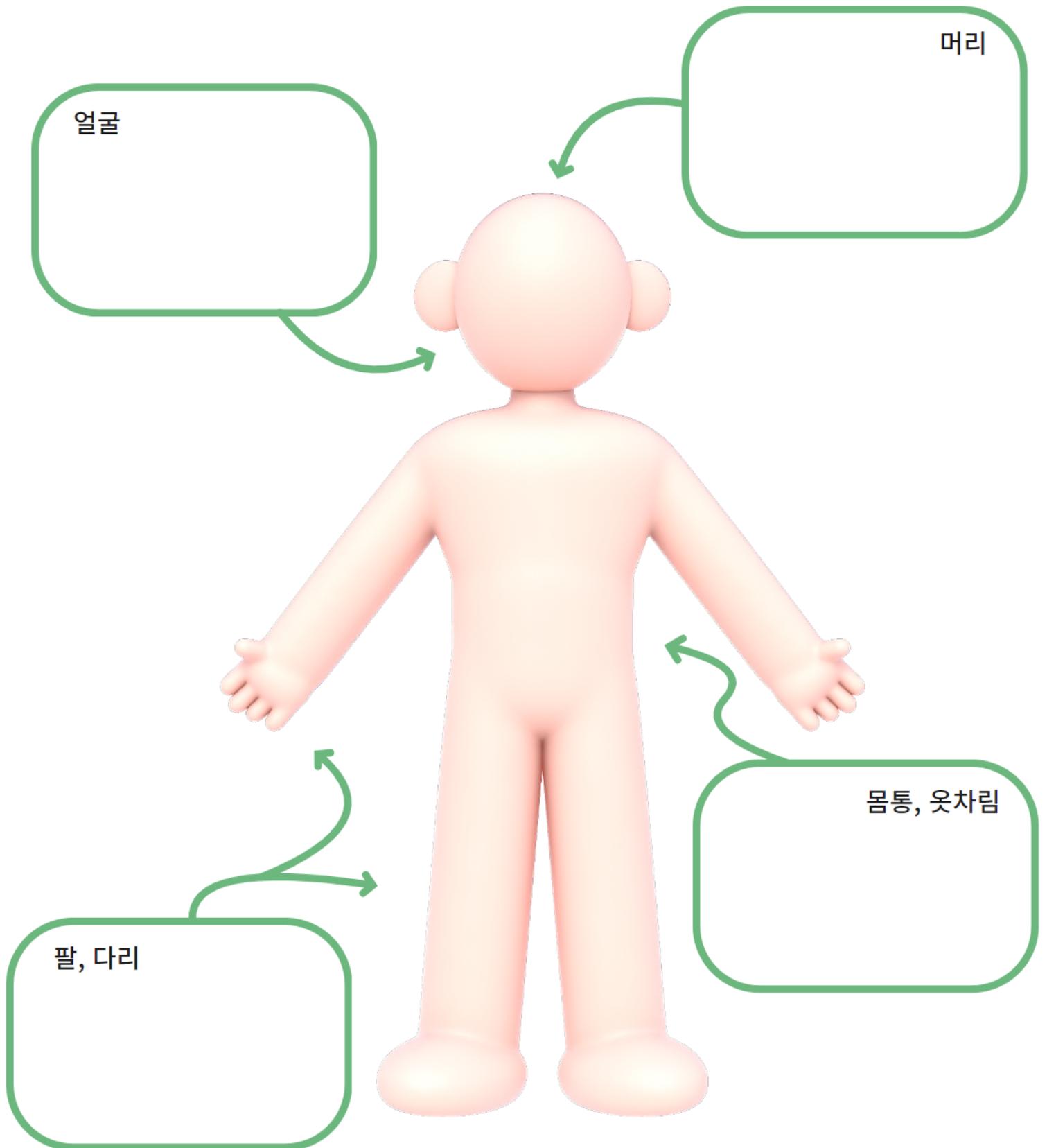
2학년 1학기 국어 3단원 '마음을 나누어요'

2학년 1학기 국어 10단원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두레아이들

활동 1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친구로부터 똥똥하다고 놀림 받은 엠마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 보며 우울해집니다. 여러분은 자기 몸이 어떻게 생겼다고 여기나요? 아래 그림에 자신이 생각하는 '내 모습'을 그리고 특징을 간단히 묘사해 보세요.



활동 2

이야기 속 인물 관찰하기

이 이야기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모 상자 안의 글을 읽고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는지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검은 그림자를 쏘아 보자 그림자가 휘청거렸어요.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학교가기 싫어졌어요.

주황색 줄무늬 옷을 입은 아이와 어깨동무했어요.

미끄럼틀을 타기와 잠자리를 잡기를 좋아해요.

체육시간에 검은 반팔 티셔츠를 입었어요.

엠마에게 붙은 검은 그림자를 눈치채고 쳐다봐요.



활동 3 어떻게 대꾸하면 좋을까요?

엠마는 똥똥하다고 자기를 놀리는 친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끄끙 앓기만 해요. 요즘엔 SNS에서도 친구들끼리 이런저런 험담을 많이 하지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의 말에는 어떻게 대꾸하면 좋을까요? 아래 말풍선 대화 창을 적절한 대답으로 채워 보세요.



재 좀 봐, 잠옷 걸친
똥보 좀 봐!



막대사탕, 또 혼자
먹냐? 내놔!



뛰는 거야, 기는
거야? 엉금엉금
책벌레!



활동 4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이 책의 주인공 엠마도 다른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자, 검은 그림자 속에 숨어 버렸지요. 하지만 누군가 내 마음을 읽어주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으론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요? 말 못 할 고민이 있나요? 엠마가 그림을 그려 표현했듯 말이나 글 또는 그림 등으로 내 마음을 묘사해 보아요.



활동 5

누구든 외톨이가 될 수 있어요

괴롭히던 친구에게 손을 내밀며 엠마는 용기 있게 '왕따의 악순환'을 끊어내요.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외톨이가 될 수 있지요. 그림책 곳곳(특히 마지막 페이지!)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어쩌면 외톨이일지도 모르는 한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림책 속에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 거울 안에 그리고, 어떤 말을 건네는 것이 좋을지 상상하여 써 보세요.

